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이행 사례 및 시사점

◆ (SDGs의 의의) 2015.9 유엔개발정상회의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하여,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할 경제, 사회, 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보다 보편적인 합의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채택

*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8개 목표, 21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반면, SDGs는 인간 (People, SDG 1~5), 지구(Planet 6, 12~15), 번영(Prosperity, 7~11), 평화(Peace, 16), 파트너십(Partnership, 17) 등 5P를 중심으로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

◆ (각국 이행 사례) SDGs 이행을 위해 각국은 초기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 전략 마련, 이행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구체적 실행 계획을 추진중

○ OECD는 각국의 국별 초기상황을 분석(SDGs 건강 검진 실시)하고, 국내 이행체계 구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회원국들의 SDGs 국내 이행 지원

○ 다수 OECD 회원국들은 별도 이행계획 마련(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 대통령/총리에 의한 조정 체계 구축(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멕시코), 국민 참여 프로그램 마련(핀란드, 독일) 등 체계적 이행 추진중

◆ (국내 이행 현황) 우리나라는 SDGs 이행을 위한 리더십 및 국민적 공감대 부족, 부처간 상이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통합적인 접근 보다는 기존 업무 체계하에서 대응

○ SDGs의 이행은 한국의 경제·사회 제반 문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행복한 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발전전략을 재검토하는데 기여 가능

◆ (정책 시사점) 우리 실정에 적합한 SDGs 이행 체계 마련 필요

① 한국의 SDGs 초기 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SDGs 이행을 위한 전략적 우선 순위 분야 선정 및 실행 계획 마련

- OECD의 초기여건 분석 시범사업 참여, 모니터링 체계 조기 구축

② 법정부 통합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전반에 SDGs 시각 반영

③ SDGs 이행에 대한 대국민 참여 및 소통 노력 강화

※ OECD의 6개회원국 대상 SDGs 시범사업 결과 보고서(2016.7), OECD의 정책정합성 평가 보고서(2016.10), SDSN의 국별 SDG 지표(2016.7) 등을 토대로 작성

I. SDGs의 의의 및 국내 이행 필요성

- 2015.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경제, 사회, 환경 분야를 아우르고 모든 국가를 포괄하는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의제이며, 기존 사고, 제도 전반에 대한 **변혁** 추구
-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8개 목표와 21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반면, SDGs는 2030년까지 달성할 **17개의 목표,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
 - ※ SDGs 17개 목표: ①가난, ②식량, ③보건, ④교육, ⑤성평등, ⑥물, ⑦에너지, ⑧경제성장, ⑨인프라, ⑩불평등, ⑪도시, ⑫소비.생산, ⑬기후변화, ⑭해양, ⑮생태계, ⑯ 평화.제도, ⑰ 이행수단
- 이의 이행에 대해 국가, 지역, 글로벌 차원의 모니터링 실시 예정
 - 국가차원: **일차적으로 각국의 자발적 주도**(지역글로벌 모니터링의 기반)
 - 지역차원: 동료학습, 지역차원 도전 파악(아태지역은 UN ESCAP 추진)
 - 글로벌 차원: UN ‘**지속가능개발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HLPF**)’ 이 SDGs 이행 최고 검토 기관
 - HLPF 주관으로 장관급 참석 모니터링을 연례 실시하고, 4년에 1회 UN 총회 주관 정상급 참석 실시 (사무총장은 연례 진전보고서 발간)
 - 유엔통계위원회(UNSC)와 IAEG(Inter-Agency and Expert Advisory Group)는 SDGs의 이행을 모니터링할 **글로벌 지표 프레임워크** 개발 작업중
 - 2016.3월 UNSC는 IAEG SDG 연구그룹이 제출한 **231개 예비 지표* 승인**
 - ※ 이는 98개의 Tier 1 지표(방법론에 합의되고 자료가 가용한 지표군), 50개의 Tier 2 지표(방법론에는 합의되었으나, 가용 자료가 적은 지표군), 78개의 Tier 3 지표(표준 방법론 및 가용 자료가 없는 지표군), 기타 15개의 미분류 지표로 구성
- SDGs 이행을 위해 각국은 자국의 실정에 적합한 우선순위 설정 등 **국별 전략, 이행 및 모니터링 체계,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정부, 민간,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 주체의 공동 노력** 요구
 - ※ SDG 17:14(이행수단) 모든 수준 및 모든 행위 주체들에 의한 정책 적합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을 추구한다고 규정
- SDGs 이행은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환경 등 제반측면의 개선점을 점검하여, 국민이 행복한 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발전전략 마련**에 기여
 - 아울러, 정책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 예상

II. SDGs 국내 이행 평가 및 OECD 회원국 이행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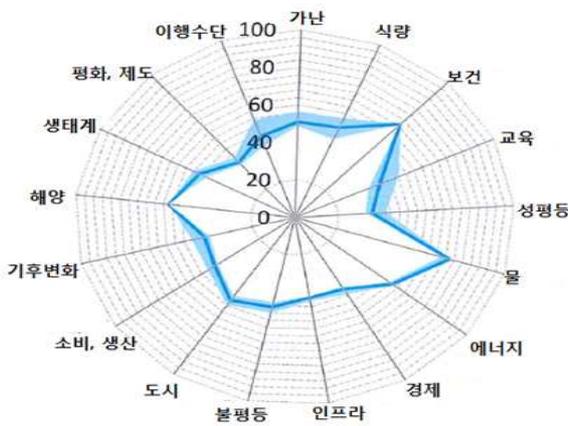
1. SDGs 이행 국별 초기 상황 평가

□ OECD는 회원국들의 SDGs 이행을 위한 GPS 역할을 자처하며 이행 초기 여건과 목표 지점까지의 거리를 분석하는 시범 사업 실시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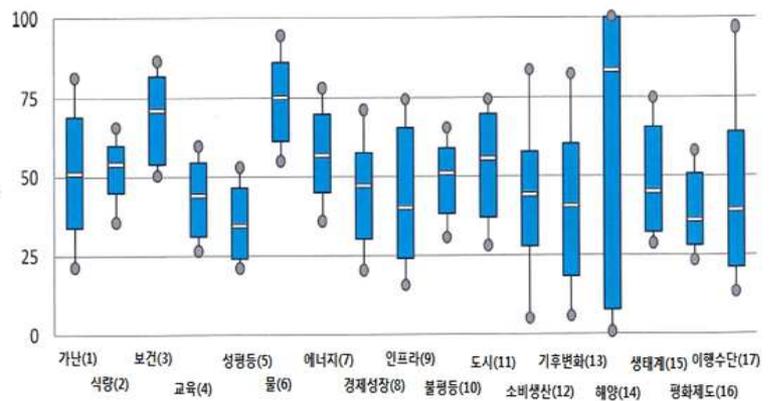
※ OECD는 작년 7월 6개국(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웨덴)에 대한 1차 시범 사업 조사 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이후 5개 회원국(칠레,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체코)에 대해 추가 시범 사업 실시

○ 보건(SDG3), 물(SDG6)은 약70%, 가난(SDG1), 식량(SDG2), 에너지(SDG7), 도시(SDG11), 해양(SDG14)은 약50% 이미 목표 지점에 접근 하였으나, 성평등(SDG5)은 약 1β 지점에 불과 (상세 결과 별첨 1)

- 해양(SDG14), 이행수단(SDG17), 인프라(SDG9) 등은 국별 편차가 크나, 식량(SDG2), 불평등(SDG10), 제도(SDG16) 등은 편차가 작은 편



OECD 회원국 평균 SDG 초기 상황



SDGs 목표별 회원국 초기상황 편차

○ 조사 대상국중 노르웨이는 총 73개 세부 목표중 23개 목표를 이미 달성하고, 농산물 보조금 축소 등 1개 목표가 미진한 반면, 슬로베니아는 8개 세부 목표는 달성, 전염병 사망자 감축 등 13개 세부 목표는 미흡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 UN 자문기관인 지속가능개발해법네트워크(SDSN)는 독일 베텔스만재단과 공동으로 총146개국을 대상으로 국별 초기 현황을 평가(2016.7월)
 - 동 조사 결과, 스웨덴(84.5), 덴마크(83.9), 노르웨이(82.3), 핀란드(81.0) 등 북유럽국가들이 최상위권(1~4위)을 석권
 - ※ 상위 15위권내 비유럽권 국가로는 캐나다(13위)가 유일
 - 우리나라는 총점 72.2점으로 146개국중 27위를 차지 (상세 결과 별첨 2)
 -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75.0, 8위)과 싱가포르(74.6, 19위)에 이어 3위, OECD 국가중에서는 25위
 - 인프라(SDG9), 소비·생산(SDG12)은 이미 달성, 가난(SDG1), 식량(SDG2), 교육(SDG4), 경제성장(SDG8), 불평등 해소(SDG10) 등 4개 목표는 주의, 여타 9개 목표는 미흡으로 평가
 - ※ 동 조사는 SDGs 17개 목표에 대해 총77개의 세부지표를 부여하고, 각 세부지표별로 1~100% 범위내 평균치와 표준편차 등을 고려, 녹색(이미 목표 달성)-황색(주의, caution lane)-적색(미흡 - seriously far from achievement) 등 3개 구간으로 분류

<한국의 SDG 목표 일람표(Dashboard) >

	SDG1	SDG2	SDG3	SDG4	SDG5	SDG6
대한민국 Korea, Rep.	빈곤퇴치	기아해소 /식량안보	보건증진	교육보장 /평생학습	성 평등	물과 위생
	에너지	경제성장 /일자리	인프라 /산업화	불평등 해소	도시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기후변화 대응	해양자원	육상생태계	평화로운 사회 ·제도	이행수단/글로벌 파트너십	

- 세부지표(총77개)별로 빈곤지수, 유아 및 산모 사망률, 기대수명, 전기 접근율, 연구개발 지출, 인터넷 사용율, 특허출원을 등 총41개 지표는 녹색(이미 목표 달성)으로, 총14개 지표는 적색(미흡)으로 평가
 - ※ 상세 내용은 붙임 2 참조

2. OECD 회원국들의 SDGs 국내 이행 사례

- **OECD**는 UN의 고위급정치포럼(HLPF) 자발적 국별 평가에 참가한 22개국중 **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아래 **정책정합성(PCSD,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8개 요소별 국내 이행 현황 분석**

※ 한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멕시코,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 SDGs는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적 접근**, 연관 이슈(예: 물-에너지-식량 등)의 **통합적 접근**, 지방-국가-글로벌 차원의 **총체적 접근**이 필요한 바, OECD가 개발한 **정책정합성 8가지 요소**는 통합 체계 구축의 유용한 **가이드 제공**

- ① **정치적 약속 및 리더십**: 다수국가는 기존 국가개발전략의 SDGs 연계를 강화(한국, 에스토니아, 독일, 스위스 등 대부분)하고, 일부 국가(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는 이외에 **별도 SDGs 구체 이행 계획**을 마련

< 별도 SDGs 이행계획 수립 사례 >

회원국	사 례
핀란드	National Implementation Plan for Agenda 2030
프랑스	Nation Action Plan for SDGs (수립중)
노르웨이	Plan for National Follow-up of the SDGs
스위스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SDS) 2016-2019 (2016.1월)

<SDGs 정책 정합성에 대한 명시적 약속 사례 >

회원국	사 례
에스토니아	2020년까지 SDGs 정책정합성 프레임워크 구축 추진
핀란드	2016.1월 지속가능위원회 조정사무국을 환경부에서 총리실로 이전
독일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NSDS)를 개정, 연방정부의 정책정합성 기능 제고
스위스	SDS에 정책정합성 중요성 강조,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②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 총리실의 국가정책(핀란드), 예산 절차(노르웨이), 정책 가이드라인(스위스), 개발부내 부처간 작업반 설치(터키) 등을 통해 균형적 접근 도모

<경제·사회·환경에 대한 통합적 접근 사례 >

회원국	사 례
핀란드	국가정책(National Policy)으로 SDG 3가지 차원을 통합해서 접근 하도록, 개념, 도구, 전략 및 다자 포럼 마련
독일	NSDS을 SDG 3가지 차원의 균형적 접근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정
노르웨이	부처별 예산안 제출시 소관 SDG 목표 이행 현황을 제출하고, 관련 부처와 조정토록하는 예산절차에 의한 통합적 접근
스위스	SDS 2016-2019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연방 정부의 분야별 정책에 지속가능개발을 주류화하여 3가지 차원의 균형 접근 도모

- ③ 미래 세대에 대한 고려: 한국, 핀란드, 스위스 등은 20~30년에 걸친 장기의 국가 이행 전략 추진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 사례 >

회원국	사 례
한국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2016-2035
핀란드	“The Finland we want by 2050”는 미래 정부프로그램 등이 지속가능개발 약속을 준수토록 하는 장기의 정책통합성 프레임워크
스위스	SDS 지속가능정책 가이드라인은 미래에 대한 책임 강조

- ④ 국내 정책의 대외적 효과 분석: 개발정책위원회(핀란드), 연방위원회(스위스)에서 국내·외 정책간 연계 강화, SDGs 이행시 글로벌 공공재 및 타국에의 영향을 고려토록 요구(독일)

< 국내정책의 대외적 효과 분석 사례 >

회원국	사 례
핀란드	개발정책위원회가 개도국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정책 결정 지원
독일	국내영향, 여타 국가 및 글로벌 공공재에의 영향을 모두 고려
스위스	SDS 가이드라인은 국내 및 대외측면에서 정합성 확보 강조

- ⑤ 정책 조정: 다수 국가(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멕시코)는 총리/대통령실에서 조정하나, 일부는 정부간 작업반 설치(스위스, 터키), SDG 목표별 조정 부처 지정(노르웨이)

< SDGs 이행 정책 조정 사례 >

회원국	사 례
핀란드	총리실(조정 사무국은 지속가능개발위원회 사무총장실, 외교부 및 총리실 대표로 구성)에서 총괄 조정
프랑스	총리실 직속 정부간 지속가능개발 대표(부처별 고위 대표로 구성)
독일	연방 수상 주재하 모든 연방정부 부처가 참석하는 고위급 국무 장관위원회(state secretaries' committee) 에서 총괄, 조정
멕시코	대통령실 조정 (SDGs 이행을 위한 고위급 위원회 수립중)
노르웨이 (SDG별 조정부처 지정사례)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SDG 1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od SDG 2
	Ministry of Health and Care Services SDG 3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SDG 4
	Ministry of Children and Equality SDG 5
	Ministry of Climate and Environment SDG 6, 12, 13, 15
	Ministry of Petroleum and Energy SDG 7
	Ministry of Finance SDG 8, 10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Fisheries SDG 9, 14
	Ministry of Local Government and Modernisation SDG 11
	Ministry of Justice and Public Security SDG 16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DG 17	

- ⑥ 지방/지역 차원의 관여: 지방 순회(핀란드), 지역 워크숍(프랑스), 정기대화(독일) 등 혁신적 참여 프로그램 실시

< 지방/지역 차원의 관여 사례 >

회원국	사 례
핀란드	도시, 지자체, 지방, NGOs 및 지속가능개발 운영 협약에 서명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순회(regional tours) 계획중
프랑스	지방의 SDG 국가행동계획에의 참여를 위해 지역 협의 워크숍(regional consultative workshops) 개최 계획 구상중
독일	연방정부는 16개 주정부와의 정기 대화체 운영 (주정부는 연방 정부의 NSDS 개정 과정에 참여하고, 11개 주정부는 자체 지속가능개발 전략 수립)
멕시코	대통령실은 지방정부의 SDGs 관여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중 (주지사 회의, 시장 회의 등 기존 메커니즘 활용)

- ⑦ 이해관계자 참여: ‘We want by 2050(핀란드)’, ‘Charter for Future(독일)’ ‘Sustainability Alliance(멕시코)’ 등의 프로그램 운영

< 이해관계자 참여 사례 >

회원국	사 례
핀란드	2016.4월 현재 “The Finland we want by 2050(부제: Society’s Commitment to Sustainable Development)”에 정부부처, 학교, 지자체, 시민사회 등 총 240개 기관 가입
독일	“Charter for the Future”는 지속가능개발에의 CSO 참여를 촉진키 위한 프로그램으로 2014년 이래 약100여개 기관이 공개토론에 참여
한국	2016.6월 SDGs 한국시민사회 네트워크 설립 등
멕시코	멕시코 국제개발협력청은 “Sustainability Alliance”라는 SDGs를 비즈니스에 활용하기 위한 민간기업과의 대화체 설립 - 80여개의 멕시코 기업 및 다국적 기업들을 포함하는 대화체
노르웨이	원주민의 SDGs 참여를 위한 메카니즘 설립
스위스	SDG 정책 형성의 모든 절차에서 폭넓은 SDGs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위해 “2030 Dialogue on Sustainable Development” 마련

- ⑧ 모니터링/보고: 프레임워크 개발중(한국, 터키, 핀란드, 스위스), 별도 기관 신설(멕시코), 예산·국회 차원 통제(노르웨이, 프랑스)

< 모니터링/보고 프레임워크 개발 사례 >

회원국	사 례
프랑스	국회 통제하에 부처별 감찰관이 SDGs 관련 공공정책 평가
한국	통계청에서 SDGs 통계모니터링 프레임 워크 구축중
멕시코	정부는 SDGs 통계 모니터링을 위한 특별 기술위원회(CTEODS) 설립 - 대통령실, 통계청, 인구위원회 등 약 25개 정부부처 참여
터키	통계청을 중심으로 검토 프로그램 마련중

Ⅲ. 우리나라의 SDGs 국내 이행 현황

□ 별도의 통합적 이행체계 없이 기존 업무 분장하에서 SDGs에 산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조정 기능 강화 필요

- 국무조정실은 '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4~2018)"의 수립, 운영 책임을 수행
 - (SDGs 국내 이행 업무) 환경부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 운영을 추진중이며, 2016. 1월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16~2035)"을 수립, 공표
 - 26개 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환경부 소관의 동 기본 계획은 △ 건강한 국토환경, △ 통합된 안심사회, △ 포용적 경제성장, △ 글로벌 책임 국가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4대 목표 (14개 전략) 설정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상 전략의 SDG 목표별 분류 >

SDGs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상 14개 전략
SDG1	가난 퇴치	사회 통합 및 성 평등
SDG2	식량	지역간 격차 감소 예방 건강 서비스 강화
SDG3	보건	예방 건강 서비스 강화
SDG4	교육	사회 통합 및 성 평등
SDG5	성평등	
SDG6	물	청정수에의 접근 확보 및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SDG7	에너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 수립
SDG8	경제성장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SDG9	인프라	
SDG10	불평등	사회 통합 및 성평등
SDG11	도시	양질의 환경 서비스 확보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
SDG12	소비·생산	환경친화적 경제 공고화
SDG13	기후변화	기후변화에의 적극적인 대응
SDG14	해양	에코시스템 서비스 가치 제고
SDG15	생태계	
SDG16	평화·제도	지속가능 개발 이행을 위한 시스템 강화
SDG17	이행수단	2030 지속가능 의제 파트너십 강화 환경을 위한 동북아 협력 강화

- (통계 프레임워크) 통계청에서 작업중
 - ※ 통계청은 SDGs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서울대학교와 협력, 기존 지표 (National Key Indicators, Quality of Life Indicators, e-Nara Indicators 등) 검토 작업중
- (개발협력업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간사: 국무조정실장)가 심의, 조정
 - ※ 외교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이행현황과 전략 보고서를 작성, UN HLPF(2016.7월 자발적 국별평가보고서), G20(2016.6월 Action Plan관련 이행현황 보고서) 등 제출
- (문제점) 리더십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한 통합적 이행 체계 구축 필요
 - ※ 상기 정책정합성 8개요소중 ③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 계획)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선이 필요한 상황
- 경제, 사회, 환경 등 제반측면의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나, 현 환경부 중심 이행체계로는 실효적 이행이 어려움.

IV. 정책적 시사점 및 제안

- SDGs는 정부, 민간, 시민사회 등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의제인 만큼, 리더십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한 범정부적·통합적 접근 요구
- ① 우리나라의 SDGs 초기 여건에 대한 분석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SDGs 전략적 우선 순위 분야 및 실행계획(로드맵) 마련 필요
 - SDGs 초기 여건 분석은 우리 사회의 취약 부분을 점검하는 건강검진 기능을 하는 바, OECD 시범사업 참여 추진
 - 특히, SDSN·베텔스만 공동평가에 따른 한국에 대한 14개 불량 지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 검토
- ② 조정과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범정부 SDGs 추진 체계 구축 검토
 - 정책간,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통합적 이행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 SDGs 이행 체계에 맞추어 관련 법제를 개편하고, 정책 입안시 SDGs 목표 진전에의 영향 분석 검토
 - ※ 現지속가능발전법은 SDGs 채택 이전 법령
- ③ SDGs 이행의 국민적 공감대 조성을 위한 대국민 참여 및 소통 노력 강화
 - 전문가 기고 등 국내 언론 홍보, 지방 순회, 워크샵 등 활성화

붙임 1

OECD의 SDGs 이행 초기 여건 분석 시범 사업 결과

- (조사 방법) 주로 OECD 자체 보유 통계를 기초로 측정 기준에 부합하는 86개의 지표*를 선정, 회원국 최저 10%의 평균점수를 0으로 하고, 목표치를 100으로 설정하여, 목표 및 세부 목표별 초기 상황 및 거리 측정

* 목표별 취지(Face Validity), 회원국들간 차별화 가능, 자료 확보 가능성, 양질의 통계 등 4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86개 지표를 선정(이들 지표는 총169개중 **73개 세부목표**를 대상으로 하며, 일부 세부 목표는 2~3개의 복수 지표 선정)

- (회원국별 초기 이행 상황 조사 결과: 1차 조사 대상 6개국)
 - (덴마크) 총73개 세부 목표중 **21개 목표를 이미 달성**
 - (핀란드) 총73개 세부 목표중 **13개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으며, 개도국에 대한 장학금 확대, 에너지 효율 2배 증가 등 **6개 세부 목표 미진**
 - (네덜란드) 총 73개 세부 목표중 **11개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으며, 여성 및 소녀에 대한 차별 종식 등 **4개 세부 목표 미진**
 - (노르웨이) 총73개 세부 목표중 **23개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으며, 농산물 시장에의 무역 왜곡 시정 등 **1개 목표 미진**
 - (스웨덴) 총73개 세부 목표중 **19개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으며, 여성 및 소녀에 대한 폭력 철폐 등 2개 세부 목표 미진
 - (슬로베니아) 총73개 세부 목표중 **8개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으며, 개도국에의 농촌 인프라 투자 확대 등 **13개 세부 목표 미진**

- (슬로베니아 사례)



- **기달성 목표:** (SDG3) 산모사망률, 보편적 의료보험, (SDG6) 안전한 음용수, 물사용 효율성 증진, (SDG7) 에너지접근도, 재생에너지 비중 (SDG10) 저소득층 소득증가 등 8개 세부 목표

- **미진 목표:** (SDG3) 전염병 조기 사망률 감소, (SDG8) 무역을 위한 원조 증대, (SDG10)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FDI 증대, (SDG16) 부패 및 뇌물 감소, (SDG 17) 능력배양 지원확대, 통계능력 배양 등 13개 세부 목표

붙임 2

SDSN과 독일 베텔스만재단의 한국의 초기 상황 평가

< 한국의 SDG 세부 지표별 평가 >

SDG	지표 (단위)	값	평가
SDG 1 (빈곤퇴치)	1일 \$1.90 이하 빈곤자 수	0	●
	빈곤선 50%(%)	15	●
SDG 2 (기아해소/ 식량안보)	영양부족률(Prevalance of Undernourishment) (%)	5	●
	곡물 산출량(Cereal yield) (t/ha)	6.6	●
	5세 이하 발육부진율(Prevalance of stunting under -5s) (%)	2.5	●
	5세 이하 영양실조율(Prevalance of wasting under -5s) (%)	1.2	●
	지속가능한 질소관리지수(sust. Nitrogen Management Index) (0-1)	0.6	●
	성인 비만율 (%)	5.8	●
SDG 3 (보건증진)	5세이하 사망률(천명당)	3.4	●
	산모 사망률(천명당)	11	●
	신생아 사망률(천명당)	1.6	●
	의사 밀도 (Physician Density) (천명당)	2.1	●
	결핵 발병률 (10만명당)	86	●
	교통사고 사망률 (10만명당)	12	●
	청소년 출산율 (Adolescent fertility) (10만명당)	1.7	●
	주관적 웰빙 (0-10)	6	●
	출산시 건강기대수명(Health Life Expectancy at birth) (년)	73	●
	영아 예방접종률(Infants who receives 8 WHO vaccines) (%)	99	●
	흡연율 (Daily smokers) (% , 15세 이상)	19.9	●
SDG 4 (교육보장/ 평생학습)	기대 교육 기간(Expected years of schooling) (년)	16.9	●
	식자율 (literacy rate) (%)	n.a	-
	순초등학교 등록률 (Net primary school enrolment rate) (%)	97.7	●
	고등교육 인구 (Population with tertiary education) (%)	40.4	●
	PISA 성적 (0-600)	542.7	●
	고등인문 교육 비중 (%)	98	●
SDG 5 (성 평등)	의회내 여성 의원 비중 (%)	16.5	●
	여성 교육 기간 (Female years of schooling) (% male)	87.9	●
	여성 노동 참가율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 male)	69.3	●
	피임도구수요 불충족률 (Unmet demand for contraceptive)(%)	18.2	●
SDG 6 (물과 위생)	남성과의 임금 격차 (% , 남성임금 대비)	36.3	●
	물 접근성(Access to improved water) (%)	97.6	●
	위생설비 접근성(Access to improved sanitation) (%)	100	●
	취수율 (freshwater withdrawal) (%)	41.9	●

SDG 7 (에너지)	전기 접근율 (%)	100	
	비고형 연료(non-solid fuels) 접근율 (%)	95	
	연료 및 전기로부터 이산화탄소 (MtCO ₂ /TWh)	1.1	
	총에너지소비중 재생에너지 비중 (%)	0.7	
SDG 8 (경제성장/ 일자리)	ATM 기계 보급률 (십만명당)	290.7	
	조정된 성장률 (adjusted growth rate) (%)	0.5	
	니트 (Neither Employed nor in Education or Training) (%)	18	
	아동 노동 (%)	0	
	인구 대비 고용율 (%)	53.5	
SDG 9 (인프라/ 산업화)	R&D 지출 (GDP 대비 %)	4	
	R&D 연구인력 (고용인구 천명당)	13.5	
	로지스틱스 성과 지표(Logistics Performance Index) (1~5)	3.8	
	전반적인 인프라의 질 (1~7)	5.6	
	이동 브로드밴드 구독율 (100명당)	105.3	
	인터넷 사용율 (%)	84.3	
SDG 10 (불평등해소)	특허 출원율 (백만명당)	223.3	
	지니 계수 (0-100)	30.7	
	팔마 율(Palma ratio)	1.1	
SDG 11 (도시)	PISA 사회정의 지수 (0-10)	n/a	-
	도시 미세먼지 농도 (PM2.5 in urban areas) (µg/m ³)	29.1	
	1인당 방 (rooms per person)	1.4	
SDG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상수도율 (improved water source, piped) (%)	99.2	
	폐수 처리 (%)	83.7	
SDG 13 (기후변화 대응)	도시 고형폐기물 (kg/person/year)	0.5	
	에너지 기인 이산화탄소 배출 (tCO ₂ /capita)	11.8	
SDG 14 (해양자원)	기후변화 취약성(Climate Change Vulnerability) (0-1)	0	
	해양건강성 지수 (OHI - 수질) (0-100)	46.7	
	해양건강성 지수 (OHI - 생물다양성) (0-100)	87.5	
	해양건강성 지수 (OHI - 어업) (0-100)	2	
	완전 보호 해역 비율 (Marine sites, completely protected) (%)	7.1	
SDG 15 (육상생태계)	고갈된 어장 (Fish stocks overexploited or collapsed) (%)	20.4	
	멸종위기종 적색목록 (Red List Index of species survival) (0-1)	0.8	
	산림 면적의 연간 변화 (Annual change in forest area) (%)	2.7	
SDG 16	보호지역 면적(Terrestrial sites, completely protracted) (%)	6.5	
	살인사건 (십만명당)	0.9	
	수감 인구 (십만명당)	99	

(평화로운 사회/제도)			
	안전한 야간 보행 (%)	67.7	
	부패 체감 지수 (0-100)	56	
	출생 신고율(Registered birth) (%)	n/a	-
	정부효율성 (1-7)	3.4	
	재산권 (1-7)	4.6	
SDG 17 (이행수단/ 글로벌 파트너십)	ODA (GNI 대비 %)	0.1	
	조세 수입 (GDP 대비 %)	n/a	-
	보건, 교육 및 R&D 지출 (GDP 대비 %)	16.1	

자료원: www.sdginde.org/download

※ 작성자: 신송범 참사관(원소속: 외교부), sbshin96@mofa.go.kr